

'최적 조합' 검증 끝났다... '필승 카드' 선택만 남았다

'성과와 보완' 확인... KIA, 시범경기 결산

나성범·박민·김호령 존재감 확인...건강한 김도영 활약 기대 예열 마친 카스트로·데일, 리그 적응...수비 완성도 유지 관건 팀 피안타 리그 2위, 불펜 안정감 뚜렷·계투진 보강 효과 확인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시범경기를 마치고 정규 시즌 개막을 향한 준비를 마무리했다. 결과보다는 전력 점검과 컨디션 조율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성과와 보완 지점을 함께 확인했다.

KIA는 시범경기 12경기에서 4승 6패 2무(승률 0.400)로 9위에 머물렀다. 순위보다 선수 기용 폭을 넓히고 전력의 윤곽을 다듬는 데 의미를 둔 일정이었다.

타선에서는 중심과 일부 자원들의 활약이 눈에 띄었다.

나성범이 타율 0.381로 중심타선을 이끌었고, 3루수 박민(0.361)은 2루타 3개, 3루타 1개, 홈런 2개 등 존재감을 보였다. 지난해 71경기 타율 0.202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분명한 성장세다.

김호령도 타율 0.364에 2루타 6개로 상위 타선에서 역할을 해냈고, 김도영(0.364)은 제한된 출전 속에서도 감각을 유지했다. 정현창(0.333), 이장진(0.286) 등 백업 자원들의 활약 역시 선수층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 대목이다.

다만 전체적인 공격 생산력은 아직 끌어올릴 여지가 있었다.

팀 타율 0.249(8위), 안타 101개(8위), 홈런 10개(7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병살타는 14개로 리그 두 번째로 많았고, 타점(67개) 역시 하위권에 그치며 득점 효율이 낮았다. 특히 찬스에서 흐름이 끊기는 장면이 반복된 점은 개막을 앞두고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새 외국인 타자들의 방망이는 아직 예열 단계다.

카스트로는 34타수 8안타(타율 0.235)로 5타점을 올렸지만, 장타는 단 한 개도 없었다. 임팩트를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팀 타선의 무게감을 좌우할 변수다. 데일 역시 1할대 타율로 아직 리그 적응 단계에 있다. 수비 안정을 위해 영입한 카드지만, 타격에서도 일정 수준의 기여가 요구된다.

마운드에서는 구위와 보완 요소가 동시에 드러났다.

팀 피안타는 102개로 리그 두 번째로 적어 구위 자체는 확인됐다. 평균자책점(ERA)도 5.23으로 리그 평균(6.26)과 큰 차이는 없었다.

가장 큰 수확은 불펜의 안정감이다.

오프시즌 동안 보강된 계투진 효과는 시범경기에서도 뚜렷한 성과로 이어졌다. 김범수와 김



지난 24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과의 시범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한 KIA 선수단이 경기 후 승리의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시훈, 정해영은 무실점 투구를 선보였고, 조상우(1.80), 홍건희(3.00), 홍민규(3.00)도 3점대 이하의 평균자책점으로 힘을 보탤 예정이다. 여기에 이태양과 김기훈 등도 컨디션을 끌어올리며 상황별 활용도를 넓혔다.

선발전에선 이의리가 무실점을 기록했고, 네일은 올 시즌에도 '제1선발' 역할을 맡을 자임임을 보여줬다. 외국인 투수 율리 역시 9%이닝 2실

점(1자책점), ERA 0.93, 18삼진으로 구위를 입증했다. 다만 위기 상황에서 나타난 제구 기복은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다. 몇몇 투수들은 경기별 편차를 보이며 실점 관리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전체적으로 볼넷(50개)이 적지 않았던 점은 반드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수비에서는 내야진의 안정감과 운용 폭도 확인됐다. 실책을 최소화하며 기본적인 수비 완성

도를 유지한 점은 긍정적인 신호다.

결국 KIA는 이번 시범경기를 통해 상위 타선의 흐름과 마운드 구위를 확인하는 한편, 세부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과제도 함께 안았다.

이제 시선은 오는 28일 SSG와의 원정 개막전으로 향한다. KIA는 시범경기에서 드러난 보완 지점을 안은 채, 긴 레이스에 들어간다.

/주홍철 기자

월드컵 체제 돌입 흥명보호, '스리백' 승부수

흥명보호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전 마지막 A매치 주간의 첫 훈련에서 '스리백'을 점검했다. 흥명보호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4일(현지시간) 영국 밀턴킨스의 MK돈스 훈련장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유럽 원정으로 2연전을 치르는 3월 A매치 주간의 첫 훈련은 오후 3시부터 한 시간여 동안 '짧고 굵게' 치러졌다.

소속팀 마지막 경기에서 발을 다친 엔스 카스트로프(뮌헨글라트바흐)를 제외한 25명의 태극전사가 훈련에 임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전술 훈련에서 흥명보호 수비라인은 스리백이었다.

왼쪽부터 김태현(가시마 엔트러스), 조유민(사르자), 김민재(뮌헨)가 최후방에 섰다.

왼쪽 윙백 자리에는 엄지성(스완지시티)이 섰고, 오른쪽 윙백은 설영우(즈베즈다)가 맡았다.

흥명보호의 '정예'로만 전술훈련이 진행된 건 아니었다. '에이스' 손흥민(LAFC)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등 주축 선수 다수가 전술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회복에 초점을 맞춰 몸을 풀었다. 비록, 주축과 벤치 멤버들이 뒤섞여 소화한 전술훈련이지만, 월드컵 본선 전 마지막 A매치 주간의 '스리백 훈련'으로 시작한 것의 의미가 작지 않다.

흥 감독은 코르티부아르, 오스트리아를 상대하는 이번 2연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승리'를 꼽았다.

이번 2연전에서 '실함'을 이어가기보다는 내세울 수 있는 '최상의 카드'를 꺼내 들 거로 보

승리·자신감 중요한 유럽평가전 앞두고 첫 훈련부터 스리백 점검



코르티부아르전을 앞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손흥민이 팀 동료들과 2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북서쪽 밀턴킨스에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다. 그렇다면 이날 합을 맞춘 스리백이 월드컵 본선에서 흥명보호가 사용할 수비 전술의 '플랜 A'일 가능성이 크다.

영상 11도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3도로 매우 쌀쌀했고 간간히 빗방울까지 떨어졌으나, 훈련장 분위기는 매우 밝았다.

늘 그랬듯, 손흥민이 화기에에게 분위기를 주도했다. 동료 등에 위치정보시스템(GPS) 센

서를 직접 붙여주거나, 출다는 듯한 몸짓을 익살스럽게 했다.

올 시즌 소속팀에서 아직 미수결이 필드골을 넣지 못한 손흥민이지만, 적어도 그의 표정과 움직임에서 불안감은 감지되지 않았다.

흥명보호는 오는 28일 오후 11시 밀턴킨스의 스타디움MK에서 코르티부아르, 내달 1일 오전 3시45분 오스트리아 빈에서 오스트리아를 상대한다. /연합뉴스

광주FC, 후원의 집 '옐로우 브릿지' 새단장



프로축구 광주FC가 후원의 집 '옐로우 브릿지'(Yellow Bridge)를 재출발하고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행보에 나선다.

광주는 기존에 운영하던 후원의 집을 2026시즌을 맞아 새단장해 구단과 지역 소상공인을 연결한다는 의미를 담은 '옐로우 브릿지'로 새롭게 선보인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구단-지역 상권 간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광주는 구단이 보유한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참여 업체의 홍보 채널을 다각화하고, 팬과 지역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옐로우 브릿지는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 3단계 후원 체계로 운영되며 ▲광주FC 공식 '후원의집' 인증 현판 제공 ▲경기 일정 포스터

제공 ▲구단 홈페이지 및 SNS 홍보 등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구단 관계자는 "옐로우 브릿지는 단순 후원을 넘어 지역과 구단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옐로우 브릿지는 지역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6년 상시 모집으로 운영되고 12월 31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광주FC 공식 홈페이지 '옐로우 브릿지'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박희중 기자

영암월출마당산악회 김도현, 리드·볼더 태극마크 아시아스포츠클라이밍선수권 메달 도전

전남 산악 김도현(월출마당산악회·사진)이 태극마크를 달고 2026 아시아스포츠클라이밍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김도현은 지난 22일 전북 군산클라이밍센터에서 막을 내린 '제46회 전국 스포츠클라이밍선수권대회' 리드와 볼더 부문에서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하며 '2026년 아시아선수권'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김도현은 리드 부문에서 종합 5위로 결승에 진출한 뒤,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집중력을 바탕으로 끝까지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이며 은메달을 차지했다. 김도현은 볼더 부문에서도 결승에 올라 4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김도현은 오는 4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스포츠클라이밍선수권대회 리드와 볼더 부문에서 메달 도전에 나선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김도현을 비롯해 이준우, 채성준, 정의연(이상 월출마당산악회), 김



민영(순천클라이밍), 김주한(순천공업고등학교), 이상우(여수클라이밍) 등 전남 산악의 미래의 주역들도 출전해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채성준은 리드 17위와 볼더 5위를 기록했고, 정의연은 리드 19위, 볼더 15위, 스피드 9위를 기록하며 전 종목에서 고른 활약을 펼쳤다. 또한 이준우는 스피드 19위, 주한은 스피드 18위, 이상우는 스피드 20위를 기록하며 전국 무대에서 경험을 쌓는 성과를 거뒀다. /박희중 기자

나주영산고 이해인, 체육회장배 스쿼시 우승

동일미래과학고 박솔민 준우승...전남도청 서효주, 여자일반부 3위

이해인(나주영산고 1년)과 박솔민(동일미래과학고 3년)이 제22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스쿼시선수권대회 여자고등부 개인전 1, 2위를 차지했다.

이해인은 지난 22일 끝난 대회 여자고등부 결승에서 '전국 고등부 1위' 박솔민을 세트스코어 3대0으로 꺾고 첫 고등부 출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2026년 청소년 국가대표인 이해인은 스포츠클럽(나주스포츠클럽) 소속 선수로 전국대회 정상에 올라 스포츠클럽 육성 성과를 입증했다.

준결승전에서 이해인에게 패한 문하람(동일미래과학고 1년)은 3위를 차지했다.

박솔민, 김태영, 문하람, 김수연이 팀을 이룬 동일미래과학고는 김천한일고를 꺾고 여자고등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여자일반부에 출전한 서효주(전남도청)는 3위를 차지했다.

서효주는 8강전에서 전 국가대표 송재원을



제22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스쿼시선수권대회에서 여고부 우승을 차지한 이해인(왼쪽)과 여자일반부 3위를 차지한 서효주. <전남도체육회 제공>

세트스코어 3대0으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 국내 1위 엄화영과 접전을 펼쳤으나 세트스코어 1대3으로 아쉽게 패하며 최종 3위를 기록했다.

/박희중 기자